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19, 20)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할것을 의미한다. (21).

그러므로, 믿는자 안에있는 성령의 계속적인 이 사역은 특별한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달으며, 그리고 구체적인 순종을 함에 있어서 자라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가 영적생활과 능력면에서 침체되어 있다면, 교회로 하여금, 제 2의 차원높은 경험과 같은 어떤것으로서의 '오순절성령세례'를 받기위한 노력과 활동을 강권해서는 안된다. 그 대신에 우리는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성령안에서 보다 완전히 순종하며, 무시로 성령안에서 기도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교회가 건전한 말씀을 실제로 전파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한 토대위에서, 죄를 엄하게 다스리면서, 선교, 구제, 기도를 인간의 업적이나 노력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순종의 차원에서 겸손하게 시행해 나갈때,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또한 주님이 원하실 때, 놀라운 외적 역사도 가능케 하신다.

특집 : 성령과 삶

성령론 이해의 문제점에 관한 성경적 고찰*

안 영 복
(부교수, 구약언어학)

I. 서 론

이 글에서 필자는 우리의 성령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 개인이나 신학교 및 교회의 영적 생활에 큰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바로 이해되어 올바르게 전수될 때,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필자는 간곡한 심정으로, 이 자그마한 글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독자의 심령을 조명해 주기를 기원한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체계의 울가미에 걸리지 말고, 오직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 앞에 전적 순복할 수 있기를 피차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과 가르침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말도 하고 글도 써야 함이 신앙인의 자세인줄 믿는다.

이제 우리의 성령론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국한하여 간단히 살펴 보겠다.

II. 중생과 성령세례를 동일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A. 학자들의 견해

물론 찬반 양론의 학자들이 있지만, 상당수의 학자들이 양자를 동일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예를들면 R.A. Torrey 박사, James A. Stewart, J. Elder Cumming, Andrew Murray, Biederwolf, Bengel, Calvin,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였던 권세열 박사 등을 들 수 있다.¹⁾ 박윤선 박사도, 사실은 그의 공관복음 주석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서 알수 있는 오묘한 지식이다"고 하

* 이 글은 전통적인 본교의 성령세례에 대한 입장과는 다르지만, 다시한번 성경의 주석작업을 통하여 분석, 검토함으로써 성령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본 대학원 교수회에 제출된 저자의 보고서를 전면 게재하였다.

1) 이인환 「오순절과 성령의 세례」 (서울 : 은혜출판사, 1979 j, pp. 20-21.

로써 오순절 성령 세례 전(前) 베드로의 중생을 암시하면서도, 오순절 때 성령의 세례 받았다는 말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본다. Abraham Kuyper도, 사도들에게 성령 주심은 3가지로 구분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중생과 성령세례가 구별됨을 시사하였다. 그는 사도들에게 성령주심을 3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²⁾

① 첫째로 중생의 은혜이니, 그것의 계속적 조명을 위해서요(마태 16:16-20 시몬 베드로의 고백).

② 둘째로는 직무적 은사니, 그들에게 사도직을 맡기기 위한 것이며(요 20:22 “숨을 내 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③ 셋째는 성령의 세례니, 사도행전 1:5과 2:1이하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B. 무엇보다 성경이 이 사실을 명백히 증거한다.

1. 만일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 한다면, 오순절에 와서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생하였음을 증거한다.

(1) 요 15: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2) 요 17: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3) 요 17: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삽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삽나이다”

(4) 요 20:22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이것은 오순절 날에 이르러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제자들에게 인내할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인치신 것을 말한다고 본다.

(5) 마태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상의 성경 구절들만 살펴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에 이미 중생한 신자들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분명히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이었다.

(1) 행 1:4-5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2) 행 2:1-4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

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두 귀절을 비교해 볼 때, 오순절날 사건은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날 확실히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차영배 교수의 말과 같이,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동일한 사건으로 성령 충만의 시초를 성령 세례라 하고, 계속하여 성령 세례시에 일어났던 일과 같은 성령의 마음이 계속될 때,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본다.

R.A.Torrey 박사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란 표현은 크게 보면, 실제적으로 같은 뜻이다. 하나의 성령 세례와 많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성령 세례라는 표현은 첫번째 경험에 한정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오순절 날에 이미 중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행 10:43-47), 양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교훈이다.

2. 빌립의 전도로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와 안수로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결코 예외적인 구절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신학적인 선입관 때문에 무리한 해석을 시도해서도 안된다. 다음 귀절을 읽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자.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좃더라……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행 8:4-17)

중생과 성령 세례가 구별됨을 명시한다.

3. 행 19:1-7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2) Ibid, p. 56.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의 사역으로 설립되었다. 그 교회는 12명쯤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한 것이다.

만일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구태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였겠는가?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중생이 비체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령의 세례는 분명히 체험적으로 임함을 암시한다. 이 구절도 역시 양자가 구별됨을 보여준다.

4. 요한14:16-17을 읽어 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했으니,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받았으니, 그 전에 이미 그들은 중생하였음이 분명하다.

B. 그것이 주어지는 목적에서도 양자는 구별된다.

1. 중생의 목적: “중생”(요 3:3-8)은 “내 생명의 원리를 인간의 영혼속에 심고 영혼의 주도적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³⁾

2. 성령 세례의 목적: 성령의 세례는 중생과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행 10:43-48), 일반적으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나며, “성령의 세례로서는 능력이 전달되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된다.”⁴⁾ 다음 구절들을 읽어볼 때 이 사실을 알게 된다.

(1) 눅24:49 “볼지어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

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행 1:4-5에 의하면, 여기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말하고, 이 일이 성취된 것은 행 2장의 오순절 사건이며, 이 일이 있는 후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능력있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였다.

- (2) 행4:31-33을 읽어 보면,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그들은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 33절에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 (3) 행5:32 “우리(베드로와 사도들)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상의 구절들을 살펴볼 때, 결국 성령 세례의 목적은 이미 중생한 신자들로 하여금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임을 알 수 있다.

3. 고전 12:13의 해석 문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 학자들의 견해……고전 12:13의 세례를 ‘물세례’ 또는 ‘성령의 중생시키는 세례’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이 구절의 성령의 세례를 중생의 공작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행 1:5과 2:1이하의 성령 세례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본다.

- a) J.Elder Cumming 박사는 성령의 세례를 둘로 구분하고 그 시여자가 다르다고 한다. 하나는 성령께서 시여하시는 ‘성령의 세례’인데, 이것은 성령의 사역 중 죄인에 대한 최초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이는 사역 곧 중생의 역사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여하시는 “성령으로 세례”가 있는데, 이것은 봉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고전 12:13의 성령의 세례는 그 시여자가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하며,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물세례로).
- b) D.M.Lloyd-Jones 박사는 고전 12:13의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능력 세례(행 1:5, 2:14)와 구별되는 것으로, “성령에 의한 세례”라고 부르며, 이것은 거듭난 영혼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시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主)시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분들의 견해와는 달리,

3) 로이드 존즈, 「성령 세례」, 정원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p.11.
4) R.A.토테이, 「성령의 사역」, 이성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p.160.

c) Biederwolf는, 고전 12:13이 만일 중생에 관련된 것이라면 적어도 한번 이상은 판 성경에 짝이 되는 말이 있어야 당연하지 않겠는가? 말하면서(사34:16참조), 자신은 이 세례가 “능력부여로서의 성령의 세례”를 말한다고 보았다.

d) Herman Bavinck는 그의 <Our Reasonable Faith>에서 고전 12:13에 관하여 “사역을 위한 성령의 은사가 이웃을 위해 올바르게 활용될 때 각 개인이 교회의 일원으로 유익한 존재들이 될 것이다”고 말함으로서, 사역을 위해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러한 성령 세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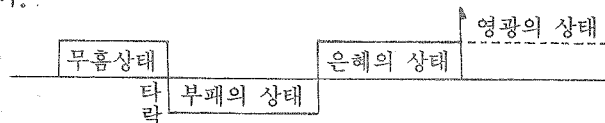
e) R.A.Torrey 박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으로 정하여 주신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므로, 이구절의 세례를 사역(직무)을 위해 임한 성령의 능력 洗禮(=성령 세례)로 생각했다.

f) 차영배 교수는 요 7:37-39을 충만으로 본다면, 고전 12:13의 “마심”도 충만으로 보아야 한다. 성령의 “마심”이 성령의 세례와 동시에 일어난 같은 사건이라면, 결국 성령의 세례와 충만(마심)은 같은 사건이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다”

(2) 보다 올바른 견해 : 고린도 전서 12장의 전체 문맥(은사 취급)에서 볼 때, 만일 이 구절의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마심”과 동시에 일어난 같은 사건이라면, 능력 부여로서의 성령 세례(충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구절의 의미는 누구나 다 성령의 세례(충만)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으로 정하여 주신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아 한 몸의 지체가 되었지 않느냐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한 7:37-39에 보면,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했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을 가리킨 것이라면(John Stott도 그렇게 봄), 고전 12:13의 “마심”도 역시 같은 성령의 세례, 혹은 충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D. 개혁신학자 H. Bavinck도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신학지남> (85년 가을호)에 발표된 차영배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H. Bavinck는 인간의 지위(상태)를 4가지로 구분했는데 성격적인 것으로 보인다.



부르심·중생·신앙·칭의·양자됨은 은혜의 상태에 속하고, 성화(성령의 세례)·건인·영화·영광 등은 영광의 상태에 속한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칭의와 성화이다(롬8:30).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킬 수는 없으나, 구별은 해야 한다. 따라서 은혜의 상태에 속한 중생과 성화의 상태에 속한 성령의 세례는 구별될 수 밖에 없다. 개혁 신학의 전통에 따르면, 중생의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성령의 세례는 확실하여 그것을 의식한다. 충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중생 시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성령 세례와 중생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논란이 많게 된 것이다. 이것은 중생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Calvin 당시만 해도, 중생의 위치를 높여,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부활의 능력, 혹은 오순절 성령의 능력과 같은 강한 역사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곧 중생의 결과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되어지므로, 중생 시기가 수세 전 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다(요1:12-13).”

H.Bavinck는 구원의 서정에 관한 언급에서 “성령은 보통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진 후에 주어졌는데, 혹은 수세시에(행2:38), 혹은 수세 전 안수시에(행9:17), 혹은 수세 후 안수시였으나(행8:17 9:6), 대개 특별한 은사들이 수반되었다”고 말하므로써, 중생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것과 성령의 임함(=성령의 세례)이 구별됨을 말한다(신학지남, '86년 봄. 여름호, p. 51).

III. 오순절 사건의 단회성 주장에 문제가 있다

A. 단회성 주장의 내용

단회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중생을 곧 성령 세례로 보는 신학체계에 서 있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아, 세계적인 사건이요 유일한 사건으로, 반복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이사랴, 사마리아, 에베소 등지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들은 모두 오순절의 성령 세례의 범위의 확장이요 성령의 통치의 확장으로, 혹은 독특하고 반복 불가한 사건 복합체의 일부라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John Stott의 견해가 그러하고 박형룡·박윤선 박사들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며, 이들이 주류를 이루어 한국 보수교단 교회의 성령론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성령의 편재하심과 무한하심에 강조점을 주는 학자들과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이 견해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순절 사건의 단회성을 예화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은 화란의 신학자 Abraham Kuyper이다. 그분의 설명은 이러하다.

“만약 성령이 오순절에 단회적으로 모든 때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머리로 부터 주의 몸에 임하였다면 성령의 보통 임재와 특별 임재를 어떻게 서로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자문한 뒤, 이것을 명백히 설명하기 위해, 수도 시설의 예화를 들었다.

“동일한 수원지(水源池)에서 수도관을 통해 공급된 물이 옛 도시에서 새도시로 유출(流出)되는 것과 같이, 오순절에 교회에 임한 성령도 처음에는 교회의 이스라엘 부분만 공급되었으나 결국, 그 성령의 흐름이 교회의 다른 부분(이방인 세계)에도 쏟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교회 전체가 마시게 되었다. 이로써 오늘날 회개하여 入信하는 사람들이 왜 성령을 특별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보통의 방법으로 받는가가 동시에 명백해 진다.”

이렇게 설명한 Kuypers는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이제 성령의 세례를 지금도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무모하고 정당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오순절의 교회와 더불어 또 성령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 수 있다. 누구든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는 결국 오순절 이적을 부인하는 것이된다. 대개 이미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또 다시 우리에게 오실 수 없다”.

B. 단회성 주장의 문제점

1. 신학적인 문제점 :

(1) 오순절 성령 강림은 代表的 原理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신학적으로 대표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담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순종뿐이다(롬5: 12-20).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무리 구속의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사도들이나 그들과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하여 받은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① 이에 관한 성경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② 대표의 원리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2) 어떤 학자는, 오순절 사건을 단회적 구속을 위한 역사적 사건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나시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높아지신 주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강림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강림이 아니라, 성자의 강림이라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성경 신학자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성자 강림이라고 한 일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삼위일체 교리와의 연관을 가지고 오순절 사건을 경륜적 혹은 기능적 면에서 본 다 할지라도, 살려주는 영과 성령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이는 살려주는 영이신 주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동일한 성령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다.

(3)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원을 단회적으로 완성한 사건이 아니다. 이것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절정에 이른 구속 사역이 미완성 내지 불완전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법은, 오히려 거꾸로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구속의 사역이 없었다면 오순절의 성령은 강림하실 수도 없고 왔다해도 아무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십자가 상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 즉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피의 구속은 완성된 것이다. 물론 부활이 없었다면 칭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었겠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없었다면, 성화의 역사가 촉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이 단회적으로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4)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사마리아(행8장), 고넬료 가정(행10장) 및 에베소(행19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까지 포함시켜 독특하고 반복불가한 사건 복합체의 일부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오순절 사건도 그렇게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련의 사건들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단 말인가?

요컨대,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 구속을 위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며 오히려 이것은 구원의 서정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⁵⁾

(5) 신학적인 문제점에 대한 정원태 교수의 견해—총회신학교 신약학 주임교수인 정원태 교수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적·언약신학적·교회론적·기독교론적·성경론적 차원에서는 단회적이거나, 그러나 사역론적·목적론적 차원에서는 계속적이라고 말한다.⁶⁾ 그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역사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였다—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제단에서,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회막)에서,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여 신자의 심령을 영구적으로 “성령의 전”으로 삼았으니,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다.

b) 언약신학적 차원에서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속 언약(창세전)→행위 언약(창2: 16-17)→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확인하셨다(아브라함, 다윗, 이사야에게, 특히 창3: 15, 15장, 신 18: 15-18, 삼하 7장, 사53장 등).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이 사역을 영광스럽게 마치고 승천하셨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이다.

5) 차영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적 사역과 그 본질적 사역의 계속성” 「신학지남」 제52권 3집(85년 가을호), pp. 9-11.

6) 정원태, 「열정 칼빈주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pp. 47-51.

- c) 교회론적 차원에서 관찰하면, 성령을 받은 장소적 의미에서 볼 때, 성전 중심의 예배드림에서 신자들의 기도 모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과거의 처소 중심에서 영혼 중심(고전3:16)의 개념으로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다.
- d) 기독교론적 차원에서 볼 때, 십자가사건→부활사건→승천사건→오순절 사건은 연결되는 그리스도 사역의 일환이다(행2:32-36). 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구원의 서정이 아니고 “구속 역사”이다.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열납되고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하나님의 확인으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 주신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순절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다.
- e) 성령론적 차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때도 영원전에 계시며 활동하셨지만,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그의 지상 사역을 수행하신 것 같이, 성령님도 영원전부터 계시고 구약시대 때도 활동하셨으나, 오순절을 기점으로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일이 반복될 수 없듯이 오순절도 반복될 수 없다.

그러나

- f) 사역론적 차원에서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실패와 낙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신 사건이다. 신구약 성경에는 이런 능력적 강림이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들과 많은 성경 인물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였다.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적 강림이 예언되었으며(눅24:49), 약속되고(행1:8), 이 약속이 오순절에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역이 계속되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도 계속됨을 볼 수 있다(행4:8,31 등등). 그러므로 이런 사역론적 차원에서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 g) 목적론적 차원에서 볼 때,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계속적·반복적 강림으로 볼 수 있다. 성령 강림의 목적도 전도요, 선교다(행1:8). 전도와 증거의 사역이 있을 때 마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임제하셨으며, 행1:8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증거 사역이 끝나기까지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하에 따라 강림하신 것이다. “우리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비유처럼 단회적이다. 계속적이다”고 논쟁만 할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

회성을 확립(確執)하면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능력적 강림은 오순절 이후에도 계속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재단에 번제의 불길과 부흥의 불길이 계속적으로 불일듯 해야 할 것이다.”

2. 신앙 생활에 미치는 문제점 :

(1) 기도생활을 약화시켜 교회의 침체를 가져오게 한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단회적으로 교회에 임하셨고 그 사건 이후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여 교회의 지체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며, 그 이후 성령은 영원히 각 신자 속에 內住하여 그를 깨우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 속에 계신 그분을 근심시키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살면, 그 분이 각자 속에서 권능을 행사할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과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생 이후 성령이 우리 각자속에 內住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실로서 성경의 교훈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한가지 놓친 진리가 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미 중생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교회의 부흥사(史)가 그러했고, 오늘도 기도에 열중하는 목회자에게 ‘위로부터 권능으로 힘입혀 주는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있음이 목회현장에서 실증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성경적·신학적 이해에도 무리가 많고 실상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해야 하는지? 를 깊이 숙고하지 않는데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우리를 대표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성경적 근거는 없다.

(2) 개혁교회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론에 대한 재정립에 있다고 의치는 Lloyd-Jones 박사, R.A.Torrey 박사, 차영배 교수, 정원태 교수 등의 호소를 한번 숙고해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3) 우리가 그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이 학생들에게 잘 소화되지 않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또한 한번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오순절 사건의 올바른 이해 —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역시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령 강림의 신령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1) 어떤 의미에서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이나?

a) 오순절 사건의 현상이 특수하다는 점에서 단회적이다.

b) 교회의 초석인 사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였다는 점에서 단회적

이다. 사도들은 교회의 열두초석들(계21:14)로서 그 직권이 다시 되풀이 될 수 없다.

- c)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점이 특이하다는 데서 단회적이다.

물론 사도 바울이나 기타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도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 성령이었고 지금도 동일한 성령의 교회 안에서와 개개신자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나 주께서 하신 일들을 목격했거나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할 수는 없다.

- d) 사람을 꾸짖을 때 죽은 일이나, 혹은 정경을 기록케 하거나, 기록한 일과 같은 사도적 표적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단회적이다.
- e) 오순절에 한번 오신 성령이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점에서 단회적이다(요14:16-18). 이것은 인격적 內住로써 단순한 편재와는 다르다.

(2)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신령한 사역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 오순절 성령이 그때의 성도들로부터 영원히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14:16) 다른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수 밖에 없다. 대표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그들속에 계시는 성령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도 없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오순절의 성령과 같은 선물을 받을 줄을 전혀 예상치 못했으므로 그저 놀랄 뿐이었다(행10:45). 베드로에게 內住하는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옮겨간 것이 아니다.

- b) 성령에 관한 약속의 보편성이 성도들 개개인에 주어졌다는 점에서 성령의 강림(세례)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요엘2:28-29의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본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선지의 예언을 보면, 성령께서 좀더 분명하게 해설을 가해서, 요엘 선지가 “그 후에”라고 한 때를 “말세에”(=“마지막 날들” *ἐν ταῖς ἔσχαταις ἡμεραις*, 행2:17)라고 밝히고 있다. 이 말에서오늘 우리 시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세에”성령 세례 받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이 약속”은 행1:4-5과 행2:33을 보면,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가리킨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대상 중에 “너희”는 베드로 앞에 모였던 군중들, 곧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너희 자녀”는 유대

인의 후손,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은 모든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니, 이 가운데 우리도 포함된다.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보다 명확히 언급하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국가·인종·남여노소·빈부귀천의 차별없이 주어진 약속임을 보여 준다. 이렇게 볼 때, 성령 세례의 약속은 사도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은혜 시대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 차별없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준다.

- c) 오순절 성령 강림은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은 사실이다, 단회적으로 단번에 완성하신 구속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에 속함으로, 대표의 원리가 적용되는 단회적 사건일 수 없다.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재림 때까지 전부 구원의 서정에 속한다고 봄이 옳다.

- d)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는 말씀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미 성취되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땅 끝”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고로, 이 말씀은 확실히 오늘날에도 계속하여 위로부터 권능의 성령이 임할 것을 미리 내다 보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본다.

- e) 성령 충만의 보편적 성격이 오순절 성령과 같은 동질의 성령이 계속 오셔야 함을 웅변적으로 증거한다.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든지 성령을 마신다는 것이 신약의 한결 같은 증거이다. 누구든지 주께 가기만 하면 원하는 자는 값 없이 배에서 생수가 강 같이 흐르듯 흡족하게 마신다고 하였다(요7:38 고전 12:13, 계22:17).

- f) 웨스터민스터 신조에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는 교리가 있음은, 성령 강림의 영속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령의 영원한 발출은 오순절에 임할 보혜사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요15:26)에 근거한 것이다. 요15:26에 “나오시는”(ἐκπορεύεται)이란 말이 현재형으로 계속나오심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Westminster 신앙고백과 함께 요15:26을 외면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정통 신앙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⁷⁾

IV. 결 론

오늘 우리의 성령론은 John Stott의 견해를 받아드린 박형룡·박윤선 박사 등을 주류로 한국 교회에 소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분들에게서

7) 차영배, 前掲書, pp.11-16.

성령론이 분명하게 확립되지 못한 채 신학교에서 가르쳐 졌고, 그 견해가 우리의 성령론 이해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들이 성령론에 관한 무게 있는 글(책)을 발표하지 못했으며, 이 사실은 그들의 성령론 이해의 빈약성을 시사한다. 이런 형편 가운데서 그동안 성령론 연구에 몰두해 온 차영배 교수 등에 의하여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실은 최근 들어 성령론 이해의 재 정립 없이는 우리 보수 교단 교회가 영적 연합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필자가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의 주요한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생과 성령 세례는 구별되어야 한다.

(2)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성령의 세례”이며 그 결과가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났다(행1:5, 2:1-4).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의 사건으로 그 시초가 성령 세례요, 그 결과가 성령 충만이다.

(3)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나타나며, 중생한 자가 자기의 직무를 능력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위로 부터 능력을 힘입는” 최초의 경험을 “성령의 세례”라 하고 그 결과 계속 반복되는 동일현상을 성령 충만이라고 본다.

(4) 중생한 신자에게는 성령이 이미 內住하여 계속 함께 하시는 데 어떻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세례(성령 충만)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성령께서 신자의 의식의 배후인 존재의 어떤 숨겨진 성소에 거하고 있는 것과 자신이 거하는 집을 전부 소유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오순절 성령 강림은 代表的 原理가 적용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필자의 결론이 성경적이라면, 주께서 이 글을 읽는 독자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원한다. 만일 이 주장이 비성경적이라면, 언제든지 그 사실을 성경으로 명확히 지적해 주기를 희망한다. 필자는 진정으로 성경의 진리앞에만 언제든지 순복하여 살기를 열망할 뿐이다. 독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빈다.

참 고 도 서

Chafer, L.S. *Stan-His Motive and Methods*. 김만풍 역. 「마귀론」. 서울: 두란노서원, 1982.
 Come, Arnold B. *Human Spirit and Holy Spirit*.
 김성민 역. 「인간의 영과 성령」.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4.

Day, Richard. C.H. *Spurgeon (The Shadow of the Broad Brim)* 「스필건의 생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Fee, Gordon D. and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1.
 Gaffin, Richard B. *Perspectives on Pentecost*. 권성수 역. 「성령 은사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Horton, Stanley M.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Holy Spirit*. 「성경의 말하고 있는 성령」. 서울: 영산출판사, 1983.
 Lloyd-Jones, D.M. *Joy Unspeakable-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정원태 역. 「성령세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_____, *Pracking & Preachers*. 서문강 역. 「목사와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7.
 _____, *The Spiritual Depression*. 오성중, 유영기 공역. 「영적 침체」. 서울: 새순출판사, 1986.
 _____, 홍정식 역편. 「성령론」. 서울: 새순출판사, 1986.
 Packer, J.I.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서문강 역. 「성령을 아는 지식」. 서울: 새순출판사, 1986.
 Palmer, E.H. *The Holy Spirit*. 최낙재 역. 「성령」. 서울: 성광문화사, 1967.
 Pink, A.W. *The Holy Spirit*. 지상우 역. 「성령론」. 서울: 엠마오출판사, 1986.
 Ramm, Bernard.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권혁봉 역. 「성경해석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Stott, John R.W. *Baptism and Fullness-The Work of the Holy Spirit*. 조병수 역. 「오늘날의 성령의 사역」.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83.
 Taylor, Howard. *Hudson Taylor's Spiritual Secret*. 오진관 역.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3.
 Torrey, R.A. *The Person & Work of the Holy Spirit* 이성강 역. 「성령의 사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Walvoord, John F. *The Holy Spirit*. 이동원 역. 「성령」.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박아론. “오순절 주의의 인기와 그 위험성.” 「신학지남」 제52권 3집('85년 가을호), pp. 35-61.
 박영선. 「성령론」. 서울: 크리스찬서적, 1986.
 박영호. 「로이드 존즈의 생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이인한. 「오순절과 성령의 세례」. 서울: 은혜출판사, 1979.
 _____ 「성령의 불세례」. 서울: 백함출판사, 1980.
 정영식 역. 「조지 헛필드」. 서울: 새순출판사, 1986.
 정원태. 「열정 칼빈주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가을호), pp. 8-12.
 _____ “성령의 세례와 충만에 관한 John Stott의 견해 비평” 「신학지남」 제49권 4집 ('82년 겨울호), pp.50-67.
 _____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에 관한 R.B.Gaffin교수의 견해 비평.” 「신학지남」 제53권 1,2집 ('86년 봄·여름호), pp.16-52.